



전남 곡성군 겸면 마전길 <선재목장> 정석재 대표

한우에서 뿔이 중하냐고? 자식처럼 키우는 게 제일이여

글 김대진 사진 엄태헌



영화 <곡성>과는 지역만 비슷할 뿐, 분위기는 180도 다른 곡성의 <선재목장>. 출하된 한우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정석재 대표(60)에게 제일로 중요한 점을 물어보자,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며 한우에 대한 긴 이야기를 들려줬다. 41년간 외길을 걸어온 명인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한 번만 봐도 한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명인의 일상을 조명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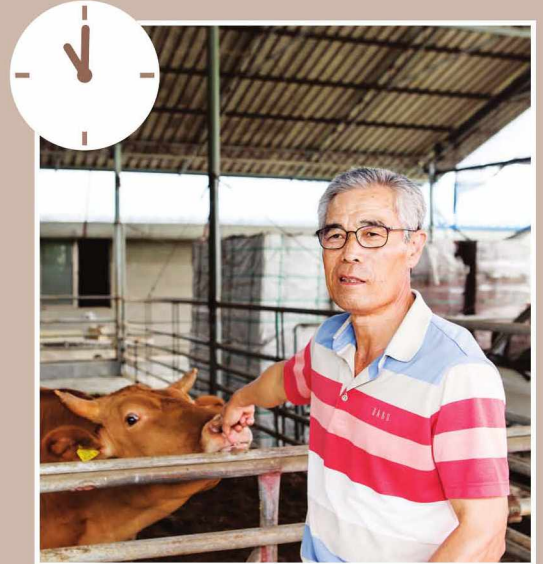


05:00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맘이 기본

새벽 5시, 축산 명인이 찾아간 곳은 우시장이다. 이곳에서 그는 좋은 송아지를 골라 목장으로 데려가 키운다고 한다. 좋은 등급의 한우를 위해서 직접 생산하는 목장이 많은데, <선재목장>은 어느 정도 괜찮은 송아지를 데려와 높은 등급의 한우로 키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송아지 선별과 사육에 대한 자신이 넘쳐 보이는 정 대표. 아침 7시가 되자, 이곳의 자랑인 TMF(발효배합사료) 만들기를 보여줬다. 들어가는 원료는 목장 주변에 직접 키운 작물과 여러 영양소들. 오랜 기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수 원료와 배합, 숙성까지 연구한 결과물이다. 그 기술성을 인정받아 여러 축산 및 약품 업체에서 사료기법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맺자고도 한다. 그만큼 소 선별과 사료배합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명인. “소는 제 자식과도 같습니다. 그런 맘으로 해왔더니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 이제 바라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가 파악이 됩니다.”

11:00 밀착관리아말로 목장의 큰 비결

<선재목장>의 소는 500여 마리인데, 모두 정 대표와 부인 둘이서 함께 키우고 있다. 매일 이 시간, 점심 때가 되면 소 관리에 들어간다. 집중 관찰해서 개별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사료 및 여물을 배급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농장에서는 단계별로 사료를 배급하고 관리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소 한 마리 기준, 즉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단계에 맞춰 사료와 관리사항을 맞추는 데, 이곳은 좀 특별하다. 한 마리의 소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 어린 송아지에서 육성비육으로, 육성비육에서 큰소비육으로 넘어가는 단계마다 정 대표가 직접 소를 관찰한 결과에 맞춰 관리에 들어간다. 어찌 보면 <선재목장>의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밀착관리, 소의 상태에 따라 사료를 관리해서 출하 시까지 좋은 성장을 이끌어 주는 셈이다.



16:00 꺼지지 않는 열정

저녁이 되면 소의 여물을 주는데, 보통 농장과 다르게 하루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한다. 사료 역시 하루 한 번! 그만큼 소를 연구한 노력의 결과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열핏 봐도 빛깔이 곱고, 온순한 <선재목장>의 소들. 건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곡성 검면이라는 지역적인 사육 이점과 항상 사료조 및 급수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여기에 자가배합사료와 밀착관리가 더해지니 한우가 어찌 건강하지 않겠는가. 조만간 오랜 기간 쌓아온 자신의 경험을 문서로 기록하겠다는 정 대표. 목장의 뒤를 이을 경영자와 젊은 축산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조심스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떤 일이든 열정과 연구가 있어야 해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성공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모든 지식이 하루 빨리 다음 축산가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해본다.